

한국 중년남성의 종교 활동과 삶의 질*

- 원불교 신앙인들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

신은보 · 김문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중년남성 신앙인들의 종교 활동과 삶의 질을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원불교를 믿는 6명의 중년남성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2012년 3월2일에서 2개월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생애사(life history) 연구방법과 생애사 자료 분석에 유용한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 의거해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종교생활을 중심으로 한 응답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변인들(contingencies)을 고려한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에 도달할 수 있었다. 면접은 다음 4개의 주제-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종교 활동 현황, 종교 활동과 가족관계, 종교 활동과 정신건강, 종교 활동과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종교가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그 점은 종교생활을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의 의식 변화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핵심 주제어: 종교, 원불교, 중년남성, 생애사, 가족관계, 정신건강, 생활만족도, 삶의 질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21)

I. 서론

청년기와 노년기의 전환점에 위치한 중년층은 소정의 과도기적 진통을 겪는다.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장시대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온 한국의 40~60대 중년 남성들¹⁾ 역시 은퇴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직업적 역할을 위시한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 생활 전반에 걸쳐 높은 스트레스를 체험한다.²⁾ 은퇴 후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이 절박한 위기 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년남성들의 심리적 공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이 극도로 제한적인 것이 오늘날 실정이다. 중년남성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감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제 문제나 사회활동의 축소 이외에도 가정에서 나타나는 중년남성의 존재감 상실은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감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년남성은 오랜 기간 직장과 사회활동에 치중하면서 가족관계에서도 단절된 모습을 띄게 되며, 이는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연결된다. 이러한 중년남성들의 심리적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년기 남성 신앙인들의 종교 활동과 그것이 가족관계,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종합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특히 종교가 삶의 의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개인에게 외상 경험을 설명하고 개인적 삶의 의미뿐 아니라 자기를 초월한 삶 자체의 의미, 확장된 수직-수평의 관계를 정립할 참조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³⁾

오늘날 한국의 중년기 남성들은 직업적·사회적 참여도 축소와 더불어 가족 내 역할 상실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체험한다. 그런 이유로 중년기 여성은 자신의 독립적 삶을 발전시켜 가는데 주력하는데 반해, 중년 남성은 대인관계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⁴⁾ 이러한 추세는 중년남성들의 세계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와 중년기의 종교 활동을 비교해볼 때, 청소년기에는 대체적으로

1) 조성숙·서훈, 『중년남성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4(서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212쪽

2)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특히 정신건강의 경우 심리학, 사회학, 의학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과 심리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정신건강으로 정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정신건강을 Maria Jahoda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감과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이며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환경의 지배가 되어 일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 건강은 어떠한 사실에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활동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존재의 상태이며, 이런 측면에서 정신건강을 고정된 형태라기보다는 유동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aillant, G. E., *Adaptation to Life*, 한성열역, 『성공적 삶의 심리학』(서울: 나남출판, 2005), 521-522쪽)

3) 이정호·이희경, 『종교적 대처방식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36(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72-174쪽

4) 윤정기, 『내 남자를 위한 관계의 심리학』(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8), 23쪽

종교에 높이 개입하다가 20세에서 40세 사이에는 감소하고, 그 후에는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⁵⁾ 이처럼 중년남성의 경우 직업적, 사회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교 활동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신앙인들의 대인관계 확장과 사회활동의 연장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제의 하나인 종교 활동 현황과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경우 종교 활동의 시기가 남성보다 길거나 진입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⁶⁾ 뿐만 아니라 여신도들을 중심으로 종교의 영향력을 분석한 지난날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대안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⁷⁾ 남성들은 종교적 믿음이 약하고 종교 활동도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 남성의 신앙심이나 종교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재 남성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종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교당 내 남성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년층의 종교 활동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반영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구 대상자 관점보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중년 남성의 직업, 수입, 건강 등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몰두했지 중년 남성의 생활세계에 대한 내면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중년기 남성세계의 심층을 이해하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종교나 삶에 대한 의미를 참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생애사적 접근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는 40-50대 한국남성들은 직장 내 지위의 박탈이나 가정 내 위치 변화에 의한 극심한 집단적 불안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는 점에서, 생애사적 접근과 같이 그들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을 자체적 입장에서 인식하려는 내부자적 시각(inside's view)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종합적 서베이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와 중년 남성의 생활상에 대한 가설을 제기하고 검증해보려는 경험적 연구물들은 비교적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 활동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자적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극히 희소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심한 역할 변화를 겪고 있는 중년기 남성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들 자체의 입장을 바라볼

5) Vaillant, G. E., *Adaptation to Life*, 한성열 역, 『성공적 삶의 심리학』(서울: 나남출판, 2005), 495-496쪽.

6)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여성의 교회생활과 여성의식·사회적식」, 『신학과 세계』 45(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2002), 182-202쪽 참조.

7) 홍옥화, 「한국 여성의 아노미와 종교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서울: 한국사회학회, 1994), 144-150쪽 참조.

수 있는 생애사적 접근(life history approach)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연구의 심도를 최대한 강화하고자 분석대상을 단일 종교인 원불교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종교 활동과 중년남성의 삶의 질

중년 남성은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놓인 세대이다. 중년남성은 가족 내에서도 자녀와 노부모의 가교적 위치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는 직장 내 대인관계와 의사결정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반면, 신체적 발달과정으로 본다면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시기이며,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해 본질적인 자아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대의 중년남성은 직장과의 성격이 다른 두 영역으로부터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⁸⁾

성공적인 중년기를 위한 중년남성에 대한 삶의 질 연구는 대체로 중년남성의 직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 가족 내 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회복, 중년남성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성인의 종교 활동의 연구는 노년기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무엇보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절망감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종교가 완충역할을 했다는데 논의가 집중되었다. 또 종교 활동과 여성의 연구에서는 자녀육아와 가사를 통한 사회활동의 제한점을 종교 활동이 대체함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남성이라는 성적 특성보다는 성인기라는 남녀를 포괄하는 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삶의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의 중년층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 포함되어있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가 종교이다. 성인기에 종교의 영향을 비교적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지배적이다.⁹⁾ 그러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도 종교가 가족관계 회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서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효과를 끼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⁰⁾ Larson 등(1989)의 연구에서 종교집회의 참여빈도가 중년남성의 혈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참여가 혈압에 긍

8) 이희윤·박지윤,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서울: 한국가족관계학회, 2011), 171쪽.

9) Stolznbre, R. M., Blair-Loy, M., "Religious Participation in Early Adulthood: Age and Family Life Cycle Effects on Church Member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1995), pp.84-103.

10) Koenig, H. G(eds.), *Handbook of religion and mental health*, (Academic Press, 1998), p.351.

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교에 참여할수록 혈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하지 않게 되고 사회활동을 통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줌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¹¹⁾ 또 Waite 등 (2003)은 결혼과 종교는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결혼과 종교는 쌍방향적 관계에 있으며 청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드러나는 점은, 중년기에 들어서면 남녀 모두 종교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외부 환경적 관심보다 내면적 관심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¹²⁾ Chatlers(2000)는 종교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성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종교 또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종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종교생활을 통한 인간관계이며 내적 평화와 안정보다 관계형성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종교의 기능은 내적, 외적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 기능은 본질적 신앙에 기초하고 외적 기능은 비본질적 신앙에 기초한다. 즉 내적인 평화와 안정, 절대자 혹은 초월적 대상에 대한 강력한 신앙이 내적기능의 형태라면, 인간관계, 종교 활동 등은 외적기능으로 파악한다. 종교의 내적 기능의 강화가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을 뒤집고 외적 기능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³⁾

그러나 성인기에 종교가 긍정적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Koenig(1997)은 종교가 성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종교의례나 집합적 종교 활동의 반 강제적 강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근본주의적 종교교리의 강압적 이해는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¹⁴⁾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는 사회활동의 증추적 위치와 함께 종교 활동 또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도와 성직자간, 신도와 신도 간의 갈등이 나타나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종교간 이념의 대립이나 마찰은 불화를 조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종교 활동의 긍정적 영향만큼이나 부정적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중년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11) Larson, D. B., Koenig, H. G., Kaplan, B. H., Greenberg, R., Logue, S. E., and Tyroler, H. A., "The impact of religion on men's blood pressur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8:4(1989), pp.265-278.

12) Waite, L. J., Lehrer, E. L., "The Benefits from Marriage and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2(2003), pp.255-275.

13) Chatlers, L. M., "Religion and Health: Public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Public Health* 21(2000), pp.335-367.

14) Koenig, H. G., *Is religion good for your health*, (The Haworth Pastoral Press, 1997), pp.23-30.

종교가 고려되고 있다. 물론 종교 효과만을 독립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나온 바 없지만, 대체적으로 종교가 중년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발견되고 있다. 중년기 남성(4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고기숙은 일탈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영성 지향도는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년남성 역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탈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문에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함축한다.¹⁵⁾ 이미에 등도 직장인 남성의 스트레스와 식생활 태도에 관한 분석을 하여,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높은 스트레스가 나타남을 밝혔다.¹⁶⁾ 종교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식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서 생활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종교가 개인에게 안정적 지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경감,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연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분명하나, 종교 활동이 오히려 건강이나 가족관계에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기보다 중년기에 종교생활을 더욱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도 사회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그 대체활동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 활동의 진입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가족관계, 사회활동 등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중년남성의 생애사적 연구

생애기간(life-span)에 따른 종교성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과정에서 종교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종교관은 생애기간이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바, 곧 사회생활의 범위나 내용, 활동영역의 특성이 다르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¹⁷⁾ 즉, 개인의 종교성이 고정적 실체가 아닌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각 연령층은 각기 독특한 종교적 성격을 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중년기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15) 고기숙,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4)(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197쪽.

16) 이미에 · 이은주 · 소혜경 · 최봉순, 「직장인 남성의 스트레스와 식생활 태도에 관한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6(3)(서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11), 337쪽.

17)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나남출판, 1997), 68-69쪽

18) 신은보 · 김진영, 「원불교 종교활동과 노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 생애사적 접근」, 『종교연구』 66(서울: 한국종교학회, 2012), 131쪽.

시기로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이다. 반면 신체상으로는 건강 약화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상실감을 자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감 강화와 신체적 건강의 약화가 중년기에 드러나는 갈등의 주된 요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년기에 내외적 스트레스는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년남성의 종교 생활에 관한 생애사적 접근은 종교의 정체성 변화를 고려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양영자는 남성 노인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였는데 특정 노인의 삶 전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사회 환경과의 관계,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¹⁹⁾ 강영호는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생애기간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적 문제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건강에 누적적인 영향이나 교호작용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사적 접근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⁰⁾ 한경혜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남성의 삶을 조명하였는데 남성 스스로가 그들의 생애사에 대한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적/무의식적 상이한 버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생애사 방법은 거시적인 사회변화가 개인의 삶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남성연구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제안하였다.²¹⁾ 신경아는 산업화시대의 남성의 일 중심적 삶을 10명의 대상을 중심으로 생애사적으로 연구하였다. 국가주도의 발전전략 하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장시간노동을 이어갔던 중년남성들의 삶을 구술사에 의거해 진행하였다. 기존에 치중해왔던 여성연구에 대한 배제되기 쉬운 남성영역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는 연구였다.²²⁾ 이근무와 김진숙은 국제 결혼한 남성들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는 국제결혼을 한 10명의 국내 남성 배우자들이 참여했고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 동기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으며,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동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다.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되기도 했고 유지되기도 했다.²³⁾ 허기한은 크리스천 중년남성들을 삶의 성숙도와 관

19) 양영자, 「생애사 재구성 - 남성노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2(2)(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302-328쪽.

20) 강영호,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법」, 『예방의학회지』 38(3)(서울: 예방의학회, 2005), 273쪽.

21) 한경혜, 「생애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28쪽.

22) 신경아, 「산업화 세대의 일 중심적 삶 : 남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 연구」, 『산업노동연구』 17(2)(서울: 산업노동학회, 2011), 239-276쪽.

23) 이근무 · 김진숙,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사회복지연구』 61(1)(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135쪽.

련하여 질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목회자와 신도들을 구분하지 않은 10여명을 면접해 의미 있는 삶과 행복의 가치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처한 사회 환경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각자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의미가 추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존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⁴⁾

최근 몇몇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중년남성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생애사 연구는 노인층이나 특정 소수자들을 연구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방법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생애사 연구방법이 과거의 생애과정에서 구체적 선택과 행동을 통해 경험자들의 현재 삶의 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⁵⁾ 특히 중년 남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하나인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애사를 탐색하여 상황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애사적 접근법은 개인의 일생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발달과 성장과정의 역사성, 다차원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며 거시구조와 개인발달의 연계를 탐색하는 이론적 전망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²⁶⁾ 생애사를 해석하는 연구는 언어로 드러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가 가리키는 심리적 내면세계를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²⁷⁾ 중년 남성의 생애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틀과 해석적인 틀을 삶의 전환점(turning point)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²⁸⁾ 각자 자신의 일생 경험 중 주요한 사건이나 시기가 무엇이며, 그것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자는 것이 생애사적 접근의 주된 목적인 까닭이다.²⁹⁾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과 연구 참여자 특성

생애사 연구는 계량적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 이해와 재해석에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생애

24) 허기한, 「크리스천 중년남성의 성숙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 17(서울: 한국기독교상담치료학회, 2009), 285-312쪽.

25) 한경혜,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회』 24(4)(서울: 한국노년학회, 2004), 87-88쪽.

26) 같은 글.

27) 이만영·김수연, 「생애사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서울: 한국심리학회, 1995), 86쪽.

28)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서울: 한국간호학회, 1998), 191쪽.

29) 신은보·김진영, 위의 글, 132쪽.

사적 관점은 개인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선택하고 조직, 형성화하는 기제로서 주제적인 의미부여로 구성된 경험조직과 행위지향의 한 형식이다. 따라서 생애사적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야기 텍스트를 관통하는 해석의 틀, 즉 생애사 주제에 의해 의식된 행위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것은 곧 과거의 체험에 대한 실재성과 이후의 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³⁰⁾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의 주요 방법인 귀추적(abductive)방법과 범주적 내용분석(categorical content approach)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귀추적 방법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중간에 해당되는 분석방법으로 두 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특정 사실로부터 과거의 실재성을 추론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³¹⁾ 즉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 시 자신의 내러티브 구조를 서술하게 될 때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칫 발생하게 되는 과거 기억에 대한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일종의 맥락적(context)이해를 가능케 한다. 범주적 내용분석은 다수의 생애사 자료에서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여러 명의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이다.³²⁾ 생애사는 하나의 이야기/서술이며,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담고 있으며, 주관적 관점을 보여주는 방법이다.³³⁾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년남성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이해를 중심으로 경험을 회상하며 의미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주관성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본다.³⁴⁾ 일반적인 삶 자체는 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생애사는 과거와 미래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되는 삶의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단편적 이해보다는 복합적이고 심층적 이해가 삶 전반의 여러 요인들과 중층적 교호작용으로 형성됨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40-60세 이하³⁵⁾의 중년 남성으로 현재 원불교³⁶⁾를 믿는 6명으로 구성되었다³⁷⁾. 연구 참여자는 임의표집(purposive sampling)

30) 이희영, 「사회학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서울: 한국사회학회, 2005), 134-140쪽.

31) Lieblich, A., Tuval-Mashiach, R., and Zilber, T.,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pp.30-35.

32) 이근무 · 김진숙, 앞의 글, 140쪽.

33) 유철인, 앞의 글, 191-193쪽.

34) 한경혜, 앞의 글, 13쪽.

35) 주로 중년기를 40세에서 60세로 설정하고 포괄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에 속하는 40대에서 60대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질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년기의 구분은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중년으로의 전환기(40-45세), 중년으로의 진입기(45-50세), 50대로의 전환기(50-55세), 중년의 절정기(55-60세)로 구분한다(정성호, 위의 책, 7쪽).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40세에서 60세 이하로 제한하고 각 연령층의 상이점을 고려하여 연령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36) 원불교는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의 대각으로 1916년 4월에 창립된 한국의 민족종교이며, 후천개벽 시대의 세계종교를 지향하는 종교이다. 원불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함께 한국의 4대종교 중 하나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임의표집이란 연구자가 관련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나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것이다.³⁸⁾ 참여자들은 40세에서 60세 이하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종교 활동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녹음된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주지시켰다. 또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유지하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면담도중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고난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들이 신앙하는 원불교의 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표 1>에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표 1〉 참여대상자의 특성

사례	연령	학력	직업	가족 구성	건강 상태	신앙 기간	종교내 지위	개종여부
1	58 (54년생)	중졸	도매업	부인, 2남	관절염, 근육통	36년	부회장	무종교 - > 원불교
2	57 (55년생)	대학원졸	교수	재혼, 1남1녀	위염, 두통	10년	평신도	개신교 - > 원불교
3	52 (60년생)	고졸	회사 임원	부인, 1남1녀	3년 전 허리수술	18년	단장	무종교 - > 원불교
4	48 (64년생)	전문대졸	영업직	부인, 2남	두통, 신경증	3년	평신도	무종교 - > 원불교
5	42 (70년생)	대학원졸	공무원	부인, 1남	특별한 이상 없음	5년	단장	무종교 - > 원불교
6	50 (62년생)	고졸	자영업	부인, 2남	약간의 청각장애	12년	평신도	무종교 - > 원불교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종교의식참여), 종교기관의 연구 참여자 관련 자료를

다. 원불교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자가 약 2년 정도의 근무를 통해 참여대상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기에 심층면접과 생애사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손정윤, 『원불교 용어사전』(원불교 출판사, 1993), 803쪽.

37) 생애사 연구는 연구대상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방법론적 쟁점이 제기될 있으나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성을 띄는 일반화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생애사 연구는 소수의 깊이 있는 인생전기를 다루기 위한 연구방법을 취한다. 유철인, 앞의 글, 188쪽.

38) Schwandt, T. A.,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1), pp.280-290.

통해 이루어졌다. 주된 자료수집방법인 심층면접은 2012년 3월에서 4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횟수는 총 5회이고 시간은 한 회에 대략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대체로 일요일 법회 후 진행하였고, 점심식사 후 계속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주로 내러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사건 중심 인터뷰(life event)를 병행하였다.³⁹⁾ 모든 면접내용은 녹음되었고 면접시작과 후에는 면접일지를 작성하여 장소와 상황, 면접자에 대한 인상과 분위기, 면접 진행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면접내용은 몇 가지의 대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참여자 별로 정리된 내용을 주제별로 재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성인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사례를 폭넓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임의표집이 이루어졌다.⁴⁰⁾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는 중요성을 지닌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는 둘 이상의 관찰자가 같은 사건을 관찰하거나, 같은 자료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고, 타당도는 현장에 가능한 오래 머물고, 폭넓고 집중적인 자료수집, 다양한 표본추출, 자료수집방법의 병용, 자료수집기간동안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증대시킬 수 있다.⁴¹⁾ 본 연구는 신뢰도를 위하여 연구자 외 기관관계인(주임교무, 부교무)이 공동 참여하여 일지작성과 면접내용 정리를 함께 하였으며, 타당도와 관련하여 심층면접의 기간을 약 2개월로 하는 등 신뢰도와 타당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참여대상자들의 진술을 원래 표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분석의 과장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결과는 참여자의 확인과정(member checking)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매 면접 시 대화내용을 재확인(rechecking)한 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개별 면접 시 수정 및 가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중년기에 종교는 인간관계의 확장과 내면적 성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음 네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종교를 접하고 신앙하게 된 진입계기로서의 인생사건, 원불교 종교 활동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종교 활동 이전과 이

39) Schwandt, T. A., 위의 책, p.285.

40) 최영신, 「질적자료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1999), 1-22쪽.

41) 유은광, 「질적 연구 방법론과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대한간호학회지』 23(4)(서울: 대한간호학회, 1993), 713-725쪽.

후 정신건강의 변화, 종교 활동과 삶의 만족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위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종교진입계기는 종교의 필요성 인식과 진입 계기 시기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신앙하는 종교와 이전에 신앙하던 종교를 확인하여 개종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입교(교도로서의 의무와 자격획득)계기는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본다.

두 번째 주제로 종교활동과 가족관계에서는 신앙생활 전과 후의 가족관계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중년 남성의 경우 가족 내 지위와 사회적 역할에서 갈등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여성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종교진입의 시기가 남성에 비해 빠른 편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신앙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사회적 위치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생활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종교를 신앙할 경우 가족 내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는 주목할 부분이다.

세 번째 주제로 종교 활동과 정신건강에서는 신앙생활 전, 후의 정신건강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남성의 우울증은 여성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년의 남성들이 불안감과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는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는 사회활동을 그만둔 후 50년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남성의 우울증은 여성과는 달리 복합하지는 않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많다.⁴²⁾ 중년 남성의 경우 체력저하와 구조조정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위기가 겹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자녀들의 진학, 결혼 등의 경제적 지출과 부모의 봉양에 의한 가정에서의 이중고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불안을 극대화시킨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중년기의 정신건강의 문제들에 종교가 완충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히려 종교 활동이 부정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계량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심층적 원인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생활과 삶의 만족도라는 주제로 은퇴 후나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심주제와 세부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Archibald, D. H., *Unmasking Male Depression*, 이현주 외 역, 『남성 우울증』(서울: 학지사, 2006), 265-87쪽.

〈표 2〉 심층면접의 중심주제와 세부주제

중심주제	세부주제
신앙계기	종교 진입의 계기
	개종이유와 종교의 필요성 인식
	입교계기와 시기
가족관계	신앙생활 전 가족관계
	신앙생활 후 가족관계
	종교의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정신건강	정신건강인식
	신앙생활 전 정신건강
	신앙생활 후 정신건강
생활만족도	행복한 삶이란?
	신앙생활 전 삶의 만족도
	신앙생활 후 삶의 만족도

1. 입교계기 및 활동 현황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종교 공동체내에서 대체로 중추적 위치에 해당하는 주요 임원을 맡고 있으며 종교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신앙의 진입계기와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한 기간이 모두 다르다.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는 총 3가지의 세부주제로 접근하였는데 상호인사, 종교의 필요성 인식과 시기, 입교계기와 시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종교진입의 계기와 개종한 경우 개종의 이유와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원인, 교도로서의 자격과 의무가 주어지는 입교계기와 시기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소위 386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복합적으로 섞여있어 민주화와 유신체제 등을 경험한 세대로서 종교진입에 있어서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참여자 1의 경우 종교진입이 다른 참여자에 비해 빠르고 종교생활의 기간도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1의 경우 유복자로 태어나 가정형성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적인 가정의 형태를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본인이 수용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결혼하니 처가 원불교는 다니고 있었지. 일요일이면 교당가고, 무슨 일, 무슨 일 마다 교당을 가니까 처음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함께 교당을 나가게 된 게 계기라면 계기지(웃음). 처가 워낙에 교당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게 싫지는 않았고.[...] 내가 나가니까 처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온 거예요. 가게를 하다 보니 처음엔 일요일에 가게 비우는게 영 마음이 내키지 않

았어. 그래서 사실 나갔다, 안 나갔다 했지. (참여자 1)

참여자 1의 경우 종교진입에 있어서 결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3의 경우 또한 가족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00씨(부인)가 원불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우니까. 그런데 나한테 원불교 가자는 얘기를 생전안하더니 어느 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직하려고 다니던 회사 그만 둔 때였어요. 애들은 크고 돈은 들어가는데 애들 엄마가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내 생각엔 그럴 때 오히려 신심이 떨어질 법한데 나한테 교당가자고 하니깐 신기할 수밖에요. 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인데다가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일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싫은 소리안하고 참아주는 애들 엄마 때문에 한 번 가볼까 생각했죠. 거기 나가도 당시엔 직장도 없고 하니깐 눈치보이기도하고 영 어색해서 힘들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교당에 가보니 애 엄마가 내 이름으로 계속 헌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본인도 답답했을텐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복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생각 많이 했네요. (참여자 3)

참여자 6은 원불교 종교의식에 참여하여하게 되면서 처음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고모님이 그렇게 원불교에서 높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천도재를 지낸다고 하길래 사찰에서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동네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기도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간 곳이 원불교 교당이었지요. 동네 한복판에 절이 있는 것이 처음에 낯설고 좀 그랬어요. 근데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한 두 번씩 가게 되었죠. 처음에 장례의식이 너무 간소한 것도 같고 했는데, 매번 가다보니 참석해주는 사람들, 교무님들이 너무 신경써주고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식구들하고 고모님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구요. 여태 나, 우리식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고모님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교무님한테 말씀드리고 교당에 나오게 되었죠. (참여자 6)

종교에서 종교의식은 공동체내의 집합감정을 강화시키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례는 집합열광 속에서 공통된 신념, 공통된 전통, 위대한 선조들에 대한 기억, 집합적인 이상 등을 재생시킨다고 전해지고 있다.⁴³⁾ 즉 집합열광은 사회적, 외재적, 강제적 힘으로 작용하여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성스러운’세계로 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례는 공동의 감정을 형성케 함으로서 동일 종교내의 종교적 정체성과 동질감을 형성하며 동일한 행동을 통해서 강화시켜나가게 된다. 참여자 6의 경우 친척의 장례의식을 경험하면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43) Durkheim, 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New York: Free Press, 1995), pp.53-60.

참여자 2와 참여자 4의 경우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기존에 신앙하던 종교가 있었던 경우이다. 참여자 2의 경우 현 종교를 신앙하기 이전에 개신교를 신앙했었고, 참여자 4의 경우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불교의 명상법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원불교인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전에 교회를 나갔지만 그때도 불교신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음.[...]그래도 현재 원불교를 나오는 이유는 뭐랄까 가장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적이고, 한 없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위계적인 그런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럼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특별히 계기라고 한다면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경계를 많이 했죠. 성경공부다 봉사활동이다 그런 걸로 피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계는 이전부터도 많았지만 그때 유독 심했어요. 아마도 그때가 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넘어가는 시기라서 더 예민하게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 생각해보니.[...]딱히 원불교가 무엇이 더 좋더라기 보다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것 같네요. (참여자 2)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가족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절에 찾아가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어머니와 함께 갔었죠. 등산을 할 때도 한 번씩 들리고 들어가서 절도올리고 했지요.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절에 다니는 것도 뜸해졌어요. 가끔 생각이 나긴했지만 뭐 안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어머니께서 동그라미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꿈에 나온 것도 이상한데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해서 한 동안 꿈이 잊혀지지 않았죠. 그러다 처한테 꿈 이야기를 하니 혹시 원불교 아니냐는 거예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몇 번 다닌 적 있단구요. 그래서 확인해 볼 겸 가까운 곳에 있나 좀 알아보라고 했죠. 멀리 있고 하면 또 마음이 안날텐데 생각보다 집 가까이 있길래 지나가면서 법회시간을 적어왔죠. 그리고 일요일에 찾아가니 처음이었네요. (참여자 4)

참여자 3의 경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가족역시 동일한 신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의 배타적 성향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종교와 가장 성향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는 극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개종은 한다는 것은 결혼, 직장과 같이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된다. 가족 내 종교적 성향과 배경은 가정의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가치관과 생활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를 전향하는 것은 큰 결단력이 요구된다. 자칫 교도교육이나 교리훈련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신앙체계를 주입할 경우 참여자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며 극단적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단지 개신교와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목할 부분은 원불교를 통해 타종교에서 받지 못한 불충분한 요구가 해소되기 때문에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새로운 종교에 대한 흥미와 관심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며, 종교를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 부재현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 3의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참여자 4

의 경우 유사성에 의한 개종으로 볼 수 있다. 불교와 원불교는 종교의 교리와 의례의 성격이 흡사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제공하지 못했던 종교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원불교가 제공해 줌으로서 대안적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참여자 2와 4는 기존 종교의 성격과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개종의 요인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입교를 하여 신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맡고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법회에 안 빠지고 나가니까 입교를 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교를 하게 되었죠. 범명도 받고 축하도 해주고 하니 책임감도 생기고요. 함께 등산가는 우리 단 단원들하고 그때 꽤 친해졌어요. 그래서 입교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교당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때 00님(범명)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러더니 옆에서 애 엄마가 따라서 00님~00님~하는 거예요. 집에서 대우가 달라져버렸죠. 범명 받고 금슬이 좋아졌죠(웃음). 그런데 범명 받고나니 갑자기 중앙(교당임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쿠! 했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나도 뭘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법회도 빠지면 안 되겠고, 단원들도 챙겨야하고, 지금은 집보다 교당을 더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요(웃음). (참여자 5)

주위에서는 계속 입교를 하라고 하는데 웬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00엄마(부인)가 자꾸 권하는데 미루고 눈치보고 있었죠. 그러다 단회하고 술자리를 갖는데 나보다 늦게 온 00씨가 다음 주에 입교식을 한다는 거예요. 범명이 나왔다고.[...] 기가 막혔죠. 그래서 나라고 못할까 싶어서 입교한다고 단장한테 말했더니 필쩍 필쩍 뛰면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입교를 했는데 막혔던 속이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웬지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아무한테도 안했는데.[...] 00엄마(부인)는 내가 화 김에 한 거 모르거든요.(웃음) (참여자 3)

입교를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참여자들도 참여자 5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일정 시기나 특별한 계기보다는 주위의 자연스러운 권유와 자신의 입교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론 입교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나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목할 점은 입교 이후 발생하는 교도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의 강화되는 현상이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교를 하기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입교 이 후를 중요한 삶의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참여자들을 살펴봤을 때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교를 하는 것보다 종교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교를 하게 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참여자의 경우 입교를 통해 기존의 사회활동 외에 사회적 지위가 부가됨으로서 자존감의 상승과 책임감을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동일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경우 참여자의 입교는 가족 내 지위의 향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종교 공동체내에서 역할을 부여받게 될 때 가족 구성원 또한 단지 가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획득한다고 간주하게 된다. 남성의 직장에서의 지위는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역할이 아니지만 종교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함

게 활동하는 유일한 공동영역으로 작용한다. 종교기관을 통해서 여가활동, 봉사활동, 조직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가정의 가려진 사회생활의 일부가 종교 활동을 통해 드러나면서 중년 남성들의 가정 내 역할과 지위가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족관계의 세부주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2. 종교 활동과 가족관계

중년남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정은 외부적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실패하며 인생의 낙오자로 분류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들보다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⁴⁴⁾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조기유학 붐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시기에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의 중년층은 ‘기러기 아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지방에서 도시로 진학을 시킬 경우 가정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이중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굳이 자녀를 멀리 보냈다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현재 가정의 심리적 거리감은 해외 혹은 지방정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중년남성들은 여가생활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이러한 거리감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나 오히려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계기를 통해서 극복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가족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이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매개가 필요하다. 즉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 종교의식참여의 반복적 행위로 가족 구성원들을 동원하게 될 때 가정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당 다니기 전에는 일요일에 조기축구 갔다가 그냥 쉬는 게 전부였죠. 뭐 애들도 다 나가고 하니까. 일요일이라고 가족이 함께 뭔가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요즘은 애들이 더 바쁘잖아요. (참여자 5)

일하느라 놀 시간이 어딴어요. 가족하고 시간 보내려면 놀아줘야하는데 그럴 시간에 일했죠. 진짜 애들 막 크고 할 때는 일만했다니까요. 술도 많이 먹었죠. 일단 애들 교육을 시켜야하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안 그래요? (참여자 6)

000씨(부인)가 권해서 교당에 나가게 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애들하고 애 엄마만 가고 나는 산에 가고 그랬죠. 애들 얼굴 보는 것도 사실 그때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일찍 같이 다닐

44) 정성호, 위의 책, p.76.

결하고 생각해요.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알건 다 아니까 그런데, 애들 자랄 때 같이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하고 그렇죠. (참여자 3)

참여자 3, 5, 6의 경우 현재 종교를 신앙하기 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을 시기에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과의 대화 부재와 유대감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자간 관계의 경우 자녀들이 초등학교 진학이 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리적으로 더 멀어지는 거리감을 갖게 된다. 자녀들이 부모의 성향을 답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족 내 가정의 부재는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왜곡된 가정의 이상형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서 한국사회의 가족 내 가장부재의 정당화가 고착화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가족 내 위치와 역할을 안정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매개로 종교가 작용하게 된다.

법명도 받고 교당에서 단장도 하고 하다보니까 집에서의 대우가 일단 달라졌죠. 00엄마(부인)가 좀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그 전보다 애들하고 애기도 많이 하죠. 교당이라는 주제가 있으니 다행이죠. 내가 애들이랑 요즘 아이돌 애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게임애기를 할거예요. 교당가면 범죄 얘기, 교당 사람들 얘기하고 그렇죠. 저번에 교당 지하에서 가족법회 때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때 애들이 내가 노래 부르는 것 처음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가족들하고 노래방한 번 가본 적이 없었던 거죠.(웃음) 애들 엄마도 신나서 노래 부르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주책이라고 혼났는데 나중에 우리끼리(가족) 가자고 하는 것 보니까 싫지 않는 모양이에요.(참여자 5)

참여자 5의 진술로 볼 때 종교가 가족통합에 긍정적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 가정의 경우 가족들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는 반면 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족 내 거리감을 해결하기보다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완충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참여자의 경우 종교는 가정의 가족 내 지위의 상승과 역할강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지만 이에 반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참여자는 종교 내에서 특정 지위가 획득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지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종한 이후로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교당에 신경 쓰는 것 같으면 눈치를 주고, 뭔가 책임을 맡을 때도 싫은 내색을 해요. 나도 강요하기 싫어서 와이프한테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공허하죠. 전 집사람(사별한 부인)이 독실하게 신앙생활(개신교)을 했는데 지금 와이프는 특별한 종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매우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몇 번 교당에 오긴 했는데 교무님 모시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와이프가 공부만해서(교수) 사실 이런 곳을 힘들어하긴 해요. (참여자 2)

참여자 2의 경우 종교생활이 가족 내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종교에서 행해야하는 의례적 행위와 태도에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 세부 주제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지 않을 경우 가족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세속적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 믿음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참여자 1의 경우 자녀와의 종교적 갈등이 가족 내 갈등조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애들이 다 커서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 지(자기)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자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도 교회를 간다는 거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 못 키운 건지 다들 그런 건지 모르겠고, 결혼은 꼭 원불교 믿거나 종교 없는 사람하고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맘대로 될지 모르겠고, 애 엄마가 한 소리 하라고 해서 뭐라 했더니만 듣는 척도 안하지.(한숨) (참여자 1)

참여자 1은 교당에서 중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교당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동일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주제에 대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종교내의 지위와 역할이 자녀들에게 역기능적 영향을 주게 된 셈이다. 참여자 1의 경우 자녀가 원불교를 믿거나 종교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진술에서 배타적인 종교성향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종교생활과 가족관계는 개인적 특수성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동일 종교 활동을 할 경우면서 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으로, 종교가 동일하지 않고 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종교 활동과 정신건강

한국의 중년남성들은 IMF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 했고 자신들을 스스로 평가한 ‘자신’과 사회가 평가한 ‘자신’간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년 남성들은 고용과 노후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해체 현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기도 한다.⁴⁵⁾ 이러한 불안감의 지속은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성세대와는 달리 현재의 중년층은 가족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무게중심을 가정에 두려는 노력은 중년남성의 두드러진 특

45) 정성호, 위의 책, p.85.

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사 영역도 여성에게 전담하는 대신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년남성들은 위기의 남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 활동 또한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과거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남성의 종교참여가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면에서 종교참여가 중년남성들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근자의 통설이다. 그러나 중년의 종교 활동이 긍정적으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내 상황, 개인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의 종교상황, 개인의 생애사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정신건강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자 2와 참여자 5의 경우 종교에서 행하는 의례적 행동이 때로 부담되며 스트레스라고 진술하였다.

교회와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솔직히 교회는 누가 왔다 가는지 사실 일일이 따지거나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죠. 물론 이미 기업화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편한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교당은 한 사람 한 사람 의식해야하고 교단의 예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사배를 올리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전 교당(좌식법회)에서 법회에 잘 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체어(의자)로 다 바꾸어서 부담이 덜하죠. 특히 훈련을 하거나 할 때 뻘히 아는 내용하는 경우도 많고 말이 좀 안통하기도 하고...[참여자 2]

지금이야 그런 것이 적지만 처음에는 낯설었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하니깐.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위계가 분명한 편이니깐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리둥절했죠. 뭐, 어른들이 그러시는 것도 부담이지만 제가 그래야 하는 건 더 부담이죠. 사회적으로 나이로나 나보다 어린데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참여자 5)

참여자 2는 종교의 의례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편으로 이는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지속하면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진술하였다. 특히 훈련이나 교도교육을 하게 될 때 거부감이 더욱 강하게 들어서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교도훈련에서 교육하는 대부분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으며,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5의 경우도 직장에서 경험한 습관들이 종교기관에서의 의례행위와 상충될 때 부담감과 거부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참여자 1, 4, 6의 경우 종교의식 등의 종교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얻고 심적 위안과 평안을 얻는다고 진술하였다.

나는 유년기가 안 좋았지. 이복형제들과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아내만나서 종교생활하면서 부터는 쫓기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 전까지는 막 쫓기며 살았거든. 그리고 내가 성질이 좀 급했거든. 엄청(웃음).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성격 급하다고 안 해. 교당에오면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차분해지지.(참여자 1)

세일즈라는 게 사실 스트레스 엄청나요. 그래서 오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서도 시달리고. 그러면 술로 풀고, 그런 생활반복이죠. 입교한 것도 이 이유인데, 교당 오면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거든요. 밖에서 받지 못한 것들이 막 충족되는 느낌이 들어요. 공부한지(신앙생활한지)얼마 안 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위에서 다들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더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얼마 전에 교당 앞 화단에 꽃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웃음) 사실 교당 나오기 전에는 죽을까도 생각했었죠. 애들은 크지 애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미로를 걷는 기분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살고, 그럼 또 막막한 하루가 시작되고, 지금도 생활이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한데, 뭐랄까, 기분이 달라졌다고 해야 맞겠죠? 지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매 순간 일을 할 때 기분이 좀 달라요.(참여자 4)

참여자 4는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종교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생활은 과거와 같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 1과 참여자 4의 경우 참여자 2와 5에 비교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위의 여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종교 활동에서 부담감과 거부감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지위가 낮은 경우 자존감과 안정 등의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위가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대를 종교기관에서도 무의식적 혹은 간접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부반응이나 부담감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의 경우 기대감 또한 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똑같은 교도 교육을 할 때에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종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여부보다 입교 후 교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본질을 망각하고 기업의 형식을 무분별하게 채용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요소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점을 본 주제의 분석 결과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4. 종교 활동과 생활만족도

종교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면접은 종교 활동 전 후의 삶에 전반적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세부주제로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종교 활동이 삶에 긍정적으로 역할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의 경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공의 여부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여성은 다소 남성과 자녀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나지만 남성의 경우 직업과 사회활동의 측면

에 보다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 역시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교라는 변수가 부재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는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종교라는 변수가 편입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종교 활동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부러워하겠죠. 돈 걱정 없고 건강도 괜찮고,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불쌍한 거거든요. 만약에 교당 다니지 않았으면 난 딱 불쌍한 처지 되었을 거야.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교당 친구들이 있으니까 맛있는 것 있으면 와서 먹고,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가게에서도 사람들은 만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참여자 1)

신앙생활하고서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낫죠. 특히 단원들이 신경써주시고, 집안에 애경사 있어서 신경 써 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위로가 되죠. 직장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요. 특히 공부방(교리공부)하면서는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 전엔 아예 모르니까 궁금한 것도 없는데,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죠. (참여자 5)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 이구나 이런 생각이요. 하다못해 기도한 번 해주는 것도 도움 주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하기 전엔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죠, 예전에 죽을까도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런 생각 하는 게 그야말로 견성이네요(웃음). (참여자 4)

참여자 1과 4, 5의 경우 종교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삶의 만족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이야기한다. 특히 남성들의 종교내 친구형성은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이다. 여성의 경우 종교에서의 책임과 종교 활동을 통한 사회환원 및 심리적 안정, 가정 내 평안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남성의 경우 종교 활동에서 만나게 되는 공동체 즉 친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중년 남성들의 친구형성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남성들은 같은 신앙공동체에서 신앙행위를 함께 공유하는 대상으로서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형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년 남성들은 종교기관 외의 다른 사적 공간에서도 신앙공동체에서 형성된 친구관계를 유지시키고 확장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등산이나, 가족여행, 각종 행사 등에 동반함으로서 단순히 같은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아닌 내면적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남성이 감수성과 유연성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남성이 점점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과정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불교에서 배운 점은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자 3)

일단은 원불교를 신앙하기 전에는 내적 갈등이 늘 있었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 답이 정확한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 속에 있었죠. 개종하고 나서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옳고 그른 것, 참되고 거짓인 것들에서 해방된 느낌이죠. 이럴 수도 또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몰랐죠. (참여자 2)

참여자 3의 경우 삶에서 배재되었던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결과중심적인 삶에서 과정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 3은 영업직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라고 학습 받아왔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으며 그 과정들을 망각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 삶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시키는 것임을 종교 활동을 통해 확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2는 삶을 지배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고 가벼워졌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해방된 기분이고 무엇보다 포용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경우 종교생활에 진입하게 된 시기가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극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과정 중심적이며,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계량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개인의 생애사적 관점으로 귀추적해 볼 때 종교는 ‘소외된 그림자 세대’라는 중년기를 ‘빛나는 황금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를 신앙하는 중년 남성의 개개의 삶에 심층적으로 접근해 종교가 가족관계,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원불교를 믿는 중년남성의 경우 종교를 접하게 된 계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후속적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관독할 수 있었다.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모두 부인이나 가까운 지인의 안내, 장례의식 등의 참여, 지역적 친밀성 등의 타의적 계기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입교 이후의 신앙생활에서는 입교기간이나 교리훈련보다 자발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 신앙에 대한 의미 및 교단에서의 역할 부여에 따라 종교적

책무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종의 경우 기존 종교의 강한 부정적 태도가 종교부재의 지속불가와 결합할 경우 극단적 개종의 형태로 드러내기도 했고, 거리적 접근성이나 교리 간 친밀성으로 유사 개종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주제는 가족관계로, 종교 활동 후 가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종교를 통해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믿음을 공유하게 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에도 가족 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가족 내 신앙이 동일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을 때 종교가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종교가 가족관계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세 번째 주제는 정신건강으로, 주로 종교 활동 전 후 정신건강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명하였다. 정신건강의 부분에서도 가족관계와 유사하게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즉,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기대에 대한 좌절에 처하게 되어 극단적 부담감과 거부감을 지니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안정감과 자존감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일단은 사회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정 종교가 고통의 신정론(theodicy of suffering)을 지향하는지 혹은 행복의 신정론(theodicy of fortune)을 대변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⁴⁶⁾ 향후 원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주제는 종교 활동과 삶의 만족도는 종교를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참여자들이 종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아실현을 촉진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삶의 만족도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흥미로운 측면은 원불교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극명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이후 관계 지향적, 과정 지향적, 이해 지향적 성향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날 목표지향성, 결과지향성, 분석지향성과 같이 남성적 특성으로 분류되어온 도구적 가치 실현에 전념해 왔던 남성들이 여성적 덕목으로 알려져 왔던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귀납적 추정이 가능한 대규모 양적 연구에 의존한 것이 아니므로 신앙인 전체 혹은 중년남성층에게조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또 원불교 고유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종교에까지 확장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개인의 다양한 생애사를 자신의 해석들에 따라 재해석함으로써 중년 남성들의 종교관이나 생

46) Weber, M.,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by H. H. Gerth and C. W. Mills, (London, Routledge, 1991)

활판에 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종교연구의 경우 여성 신앙인이 넘쳐난다는 “여초(女超) 현상”으로 인해 남성 신자들에 관한 논의가 희소한 상황이었고, 중년 남성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방법을 채택한 시도가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는 연구방법의 다양화에 일조했다고 본다. 적어도 이번 연구는 중년남성의 삶을 생애사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해 보다 풍성한 이해를 가능케 했다는 점, 그리고 종교가 신앙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정적 효과를 색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소정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종교는 개인의 삶을 의미롭게 하기 위한 신념이요, 제도라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이한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본 논문의 내용을 일반화시키거나 조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물들이 후속되어야만 종교사회학자 에멜 뒤르켐이 원시종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한 “종교생활의 기본형태(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의 최신 버전에 해당하는 “현대 종교생활의 기본형태(The New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영호,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법」, 『예방의학회지』38:3, 서울: 예방의학회, 2005.
- 고기숙,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57:4,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 손정윤, 『원불교 용어사전』, 익산: 원불교 출판사, 1993.
- 신경아, 「산업화 세대의 일 중심적 삶 : 남성노동자의 구슬생애사 연구」, 『산업노동연구』17:2, 서울: 산업노동학회, 2011.
- 신은보 · 김진영, 「원불교 종교활동과 노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 생애사적 접근」, 『종교연구』66,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2.
- 양영자, 「생애사 재구성—남성노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42:2,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유은광, 「질적 연구 방법론과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대한간호학회지』23:4, 서울: 대한간호학회, 1993.
-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7:1, 서울: 한국간호학회, 1998.
- 윤정기, 『내 남자를 위한 관계의 심리학』, 서울: 사회문화 연구소, 2008.
- 이근무 · 김진숙,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사회복지연구』61:1,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 이만영 · 김수연, 「생애사 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14:1, 서울: 한국심리학회, 1995.
- 이미애 · 이은주 · 소혜경 · 최봉순, 「직장인 남성의 스트레스와 식생활 태도에 관한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16:3, 서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11.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1997.
- _____,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여성의 교회생활과 여성의식 · 사회의식」, 『신학과 세계』45,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2002.
- 이정호 · 이희경, 「종교적 대처방식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36,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이희영, 「사회학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39:3, 서울: 한국사회학회, 2005.
- 이화윤 · 박지윤,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16:2, 서울: 한국가족관계학회, 2011.
- 장미자 · 김득성, 「개인내적 특성과 가족 특성 및 직업만족도가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 대기업 근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49:2, 서울: 대한가정학회, 2011.
- 조성숙 · 서훈, 「중년남성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54, 서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 2006.
- 최영신, 「질적자료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2: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1999.
- 한경혜,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회』24:4, 서울: 한국노년학회, 2004.
- _____, 「생애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 허기한, 「크리스천 중년남성의 성숙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17, 서울: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009.
- 홍옥화, 「한국 여성의 아노미와 종교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28, 서울: 한국사회학회, 1994.
- Archibald, D. H., *Unmasking Male Depression*, 이현주 외 역, 『남성 우울증』, 학지사, 2006.
- Chatlers, L. M., “Religion and Health: Public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Public Health* 21, 2000.
- Durkheim, 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 Koenig, H. G., *Is religion good for your health*, The Haworth Pastoral Press, 1997.
- Koenig, H. G(eds.), *Handbook of religion and mental health*, Academic Press, 1998.
- Larson, D. B., Koenig, H. G., Kaplan, B. H., Greenberg, R. S., Logue, E., and Tyroler, H. A., “The impact of religion on men’s blood pressur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8:4, 1989.
- Lieblich, A., Tuval-Mashiach, R., and Zilber, T.,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 Stolznbrey, R. M., Blair-Loy, M., “Religious Participation in Early Adulthood: Age and Family Life Cycle Effects on Church Member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995.
- Schwandt, T. A.,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1.
- Vaillant, G. E., *Adaptation to Life*, 한성열 역, 『성공적 삶의 심리학』, 서울: 나남출판, 2005.
- Waite, L. J., Lehrer, E. L., “The Benefits from Marriage and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2, 2003.
- Weber, M.,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by H. H. Gerth and C. W. Mills, London, Routledge, 1991.

원고접수 : 2012년 11월 5일 / 1차 심사 : 12월 6일 / 게재승인일 : 12월 10일

연구자소개 : 신은보

- ① 전공 : 사회학 (종교사회학) / 소속: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② 관심영역 : 종교사회학, 종교갈등, 종교생활과 삶의 질, 생애사연구, 사생학
- ③ 주요논저 : 원불교 종교 활동과 노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 : 생애사적 접근
- ④ E-mail : bo1040@hanmail.net

연구자소개 : 김문조

- ① 전공 : 사회학(이론사회학, 문화사회학) / 소속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 현대사회사상, 일상문화, 미디어사회론, 과학기술사회론
 - ③ 주요저서 :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디지털 한국사회의 이해』(공저), 『한국사회의 양극화』 등
 - ④ E-mail : muncho@korea.ac.kr
-

Abstract

Religious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Men in Korea: Life History Approach to Won-Buddhism Believers

Shin, Eunbo · Kim, Muncho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history of middle-aged men who are affiliated with a particular religion and assesses their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The life history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between March and April in 2012. The interviewees were six middle-aged men who believed in “Won-Buddhism”. We covered four topics related to qualities of life among the middle-aged : the starting event for religious life, religious activities and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religious activities and changes in mental health, religion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out those analyses, this study tries to show the kind of influence religion has upon health and societal support. Comparing the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having religious faith,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societal support and level of heal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fe of the middle-aged mal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employed life history methods and life history data analysis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ual theoretical life course perspective. This urged us to us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life and a contextual theory that enables to connect one’s past experience with the present experience. This stud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understanding one’s life does not simply end up with an investigation of one’s present situation, but it needs to examine the process of one’s life history as well.

Key words : Religion, Won-Buddhism, Middle-Aged Man, Family Ties,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